**행함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27절>**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우리는 2014년의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외적으로 에볼라 감염, 여객기 실종과 격추, 자연재해 등으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건물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2014년 12월 31일과 2015년 1월 1일은 불과 1초 차이인데, 그렇게 똑딱 하면 마치 우리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새해효과’ 라고나 할까요?

이 흐름을 타고 어떤 분들은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어학공부를 위해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고, 새 다이어리를 사서 한 해의 목표와 결심, 시간계획 등을 꼼꼼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시기에 지난 한 해 감사한 제목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기도 하며, 새해를 위한 기도제목을 작성하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 의미 있고 귀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이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마치시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너희 인생에는 언제나 조용하고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너희 삶의 터전이 위태로워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곧 무너져 내리고 그 비참함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 어떤 궂은 날씨에도 끄떡없이 서 있을 것이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작업은 그만큼 더 힘들긴 하지만 분명 더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터전 위에 실제로 우리는 차근차근 좋은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행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삶의 기초를 하나 하나 세워가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이 어떤 이에게는 괴롭고 부담스런 것으로 느껴질 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살인죄나 간음죄에 대해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며, 아내 외의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원수나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장식으로 달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 행하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어쩌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워주십니까?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려고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만큼 죄에 대해 더 끔찍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싸구려 소설책에 잉크를 엎지른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귀한 원고에 잉크를 엎지른다면, 그 잉크 자국이 못내 아쉬워집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조지 모리슨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까닭은 죄가 하나님의 우주 전체에서 가장 경이롭고 소중한 존재인 인간의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힘을 망치며 기쁨과 평안을 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까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될 수 있는지를 미루어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기록된 많은 계명들은 이처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막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성실히 행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람 하나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율법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인간 하나 하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사사 시대 말기,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는 행실이 나쁜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등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전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삼상 2:35)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분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이 잘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사사 시대 말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가 가르쳐준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하나님은 장차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 일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실로의 성전에는 사무엘 외에도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무엘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그 어떤 요란한 소리보다 더 강력히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이끌어내곤 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한 순간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화염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요란한 것들이 다 지나간 후 들려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를 할 때, 혹은 일상 속에서 문득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지는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귀족 집안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처럼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 용모와 지혜가 출중한 일부를 뽑아 그 나라 학문과 언어로 가르치고 특별한 음식을 먹여 삼 년 동안 길러서 그 나라 인재로 삼고자 했는데, 다니엘도 그들 중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이 정해준 음식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부정하게 취급하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분명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포로신세였습니다. 승전국의 왕이 정해준 음식을 부정하다고 거절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그 일의 실무를 맡은 환관장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환관장의 머리만 위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고, 조국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그처럼 뜻을 정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무자에게 청합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이후 그들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더욱 담대함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지혜자들보다 열 배나 나은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그 나라 안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후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마다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기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처럼 시험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새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뜻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확고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 해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실천을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유독 우리 주변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 시간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의지하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영원한 터전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언젠가 또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또다시 우리는 공들여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게 될 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변화무쌍한 일기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 할 때, 내년 한 해 여러분은 자신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삶의 기초들을 하나 하나 세워가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결단 가운데 성실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약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떠받쳐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2015년의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